

# 사막 한가운데서 벌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

- 이름 : 박정은
- 근무기구 및 부서 : 세계보건기구 보편적 건강보장 및 전염병 부서
- 직위/직급 : 백신 접종 프로그램 국제 전문가
- 지원경로 : UNV
- 근무기간 : 2022.06. - 현재

## 코로나 대유행의 중심에 서다

21세기에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으면서 국경을 초월한 전염병이 가진 어마무시한 파괴력과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다. 특히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초당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 글로벌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보고 나 역시도 이 기구의 일원이 되어 코로나 대유행의 종식과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진 저개발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본부를 중심으로 각 대륙에 6개의 지역사무소와 150개의 국가사무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이다. 나는 그중에서도 중동과 일부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22개 국가를 관할하는 이집트 소재의 지역사무소에서 지역 전체 및 소속 국가들의 코로나 백신 보급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사무소를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4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 내전, 빈곤 그리고 핵심 인프라 시설의 미비 등으로 자체적으로 코로나 백신 수급 및 코로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의 경우 평균 접종률이 19%로 저조한 편

이고, 특히나 오랜 남북 내전으로 고통받는 예멘의 경우 전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현재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하나의 목표, 하나의 팀

이 국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 국가의 정부 및 세계보건기구 본부 및 지역, 국가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지역 및 국가사무소,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가비(Gavi), 코백스(COVAX), 국제적십자 등의 여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원활한 백신 수급 및 대규모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여 수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대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거시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더라도 수행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각 기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화상 회의나 이메일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맞추어가는 과정이 수반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 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적과 인종,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의 목표를 가진 다국적 팀의 일원으로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특히나 다 함께 각고의 노력을 들인 대규모 코로나 백신 접종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한 달만에 10% 이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대를 보인 소말리아를 보았을 때, 그리고 탈레반의 집권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이 중단되다시피 상황에서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백신 접종률이 두어달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을 때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기구의 일원이 된다는 것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것은 분명 영광스럽고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범세계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을 느끼게 한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세계 각국의 동료들과

한 팀이 되어 일함으로써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자기 발전의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나의 경우 아랍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아직도 바뀐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세계보건기구 사무소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한국처럼 편리하지는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안이 불안한 곳으로 업무를 위해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자칫 국제기구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만으로 왔다가는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선택에 앞서 이 국제기구가 구현하려는 가치와 비전이 내가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결정한다면 이것이 꾸준한 동기부여가 되어 보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적인 업무들이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한 영문 뉴스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어 회화 및 작문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앞으로의 방향

2022년이 어느덧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지난 6개월의 시간은 인생에서 쉽사리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비단 직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성숙을 가져다준 소중한 시간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제기구에서의 커리어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남은 기간도 이 지역과 국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대를 위해 모래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열심히 발로 땀 생각이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분명 가치 있는 길임은 확실하다.



카이로, 피라미드 앞에서



필드 방문 중 마주한 현지인의 집



세계보건기구 지역사무소 로비에서



세계보건기구-유엔아동기금이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